

#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

# 3가지 방법



3월 27일은 부활절입니다.

지난 2월 10일(재의수요일)에 시작한 사순절이 끝나는 날이기도 하죠.

불과 십 수 년 전만 하더라도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 결혼식을 잡지 않는다든지,

영화를 보지 않는다든지 하는 신앙습관이 있었는데,

요즘은 그런 모습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.

금욕주의적으로 사순절을 보내며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만이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,

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

우리도 불편을 감수하고 우리 이웃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?

## “이렇게 참여해주세요”



**고난주간에 한 끼 금식하고, 기부하기**

글로벌비전([www.globalvision.or.kr](http://www.globalvision.or.kr))은 '고난주간 한 끼 금식 캠페인'을 전개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9억 2,500만 명이 영양실조로 허덕이며, 굶주림으로 5초마다 한 명의 어린 생명이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. 한 끼 금식에 참여함으로 고통받는 제3세계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은 어떨까요?



**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며 헌혈증서 기부하기**

헌혈증은 백혈병 등 혈액암으로 투병하는 환자들이 수혈을 받는 경우 현금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헌혈증 1장이 1만 원 정도로 환산되기에 많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. 문의는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([www.soaam.or.kr](http://www.soaam.or.kr)) 또는 한국백혈병환우회([www.hamggae.net](http://www.hamggae.net))로 해주세요.



**No Cross No Crown, 우리 미디어로 금식한다!**

팻머스문화선교회([www.ipatmos.com](http://www.ipatmos.com))는 고난주간에 '미디어회복캠페인'을 전개하고 있습니다. 요즘 세대들이 즐기는 미디어(게임, SNS, 만화, TV 등) 사용을 스스로 절제함으로써 예수님의 고통과 사랑을 묵상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**자발적불편운동** 정직, 검소, 절제, 나눔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현대적 의미에서 되살린 실천운동입니다.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'나부터, 지금부터, 작은 것부터' 자발적으로 불편과 손해를 감수함으로써 고통받는 이웃과 약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.



[www.cemk.org](http://www.cemk.org) 02)794-6200  
[www.facebook.com/giyunsil](http://www.facebook.com/giyunsil)  
<기독교세계>와 기윤실이 함께합니다.